

제4절 일제 강점기 순천의 농업경제*

1. 일제의 식민지 농업정책

조선은 강화도조약(1873)으로 강제 개항되었고, 각 항구를 통하여 침투한 외국상품경제는 봉건적 모순과 위기에 빠진 조선경제를 급격히 붕괴시켰으며, 식민지 수탈은 한층 더 강화되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1894)은 우리나라 근대사의 커다란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청일전쟁(1894)과 러일전쟁(1904)으로 조선에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한 일제는 전형적인 부등가 교환방식을 통해 조선에서 쌀·콩·우피 등의 원료를 값싸게 수입하고, 석유·광목 등의 공산품을 조선에 비싸게 수출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경제는 1910년 한일합방 이전에 이미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었으나, 지배층은 권력투쟁에 눈이 어두워, 이들에게 새로운 사회개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일반적으로 일제 강점기의 농업경제는 4시기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제1기는 조선에서 일제의 지배와 착취를 준비한 기초공작 단계로, 1906년 통감부 개설부터 1918년 11월 토지조사사업 완료까지이다. 이 시기는 일제 지배자들이 조선농민의 농토를 강탈하여 근대 무산자계급을 창출하고, 그들의 수중에 토지를 집중한 시기이다.

제2기는 제1차세계대전에서 독일이 식량부족으로 겪은 고통과 일본 쌀소동(1918)의 영향으로 식량자원의 중요성을 깨달아 조선총독부가 조선에 수리조합을 설치하고, 산미증산계획을 수행한 1919년에서 1929년까지의 시기이다.

제3기는 1929년 10월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대공황이 전 자본주의 세계를 휩쓸어 일본의 상공업자본주의는 물론, 농산물가격의 폭락으로 조선 농촌경제의 파탄이 속출되었던 시기이다. 조선으로 파급된 경제공황은 열악한 농촌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농촌을 떠나 일본·만주·사할린 등으로 이주하였으며, 소작쟁의는 심각한 사회·정치문제가 되었다. 이에 위기를 느낀 일제가 농촌진흥운동을 전개하여 부족한 식량해결, 춘궁농가 퇴치 및 농가 수지균형을 도모한 1932년부터 1939년까지를 제3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4기는 가혹한 전쟁부담시기인 1939년부터 1945년까지이다.

본절은 이런 역사적 배경을 중심으로 순천지역에서 전개된 농업경제의 양상을 조선과 전남의 식민지 경제상황과 관련하여 순천지역의 농촌 및 농가경제 실태, 일제시대 농업생산의 실태 그리고 지주 및 소작쟁의 실태 순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 제4절은 김병무(金炳茂) 집필임.